



2008
SeMA
Seoul Museum of Art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2008 SeMA

Seoul
Museum of Art

Kim Soon-im

Etherial

YOUNG
ARTIST



본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행중인
2006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선정작가 전시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전시장 임대료500만원 이하, 도록, 입서 등 인쇄물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홍보, 전시 컨설팅 및 도록 서문, 외부 전문가 초빙 위촉상거래 등
신진작가의 전시 준비를 지원하는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thereal

김 순 임

Kim Soon-im

서울시립미술관은 SeMA 신진작가전지원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미술시장의 성장과 지원 제도로 작가들의 작품 활동은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지만, 한편으로 젊은 작가의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진작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은 유망한 신진작가를 발굴·지원해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올해부터 SeMA 신진작가 전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SeMA 신진작가 전지원 프로그램은 유망한 신진작가들을 선정해, 전시장 임대료, 전시도록, 홍보 등 전시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도록서문 기고 및 컨설팅, 워크숍 등 전시과정 전반에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참여하여 신진작가들과의 소통과 긴밀한 네트워킹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첫발을 내디딘 SeMA 신진작가전지원프로그램이 미술창작환경을 안정화하고, 미술문화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유망 작가들의 전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작가 전시회에 오셔서 우리 미술의 내일을 짊어질 유망 작가들의 작품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서울시립미술관장 유희영

Ethereal ; 浮

양혜숙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순임의 네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의 제목은 "ethereal"이다. 그녀의 작업을 한마디로 규정해 주는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단어는 "가벼운, 천상의, 영묘한"이란 뜻의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의 첫 개인전도 (The ethereal space)라는 제목

으로 열린 바 있듯이, 작가의 관심사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성스러운 공간의 에너지에 있으며 신비롭고 초월적인 공간의 상징적 표현에 주력해 왔다. 이런 연유로 작가가 선호하는 설치장소는 다름 아닌 천정이 유리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천면이 창이어서 가능한 한 전시장 내로 많은 빛을 끌어들이 수 있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고대부터 빛은 신과 인간세계를 연결하는 영적인 존재로 해석되었다. 김순임의 유리로 된 천정 공간설치작업에서 지상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체라 할 수 있는 실과 더불어 창으로부터 쏟아지는 빛의 효과는 마치 중세 고딕성당의 채광창을 통해 들어오는 지상을 비추는 한 줄기 천상의 빛을 떠올리거나 하듯 성스러운 공간의 아우라를 고조시킨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The Space 18-천 개의 바늘)(2008) 또한 작가의 이러한 공간 표현방식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글루건을 이용해 마치 거미줄에 걸린 투명한 이슬방울처럼 반짝거림을 연출한 무명실을 전시장 입구에 천정으로부터 여러 줄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마치 천상의 빛 세례를 맞으며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처럼 황홀경을 체험케 한다. 그러나 천희의 그 짧은 순간도 실 맨 끝에 달아놓은 반짝이는 날카로운 바늘을 대면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는 눈부신 아름다움의 이면에 내재한 작가의 아프고 시린 상처의 표출이기도 하다.

자연과 사람, 그 공간의 에너지

2003년부터 시작된 (공간) 시리즈를 통해 작가는 주어진 전시장 안에 자신이 경험한 주변의 자연 현상과 그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느낌을 실려 천정과 바닥을 연결시키는 공간설치작업을 다양하게 시도해 왔다. 기존의 공간 시리즈 (공간 3, 4, 5, 7, 10, 12)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근작인 (공간 17)(2008)은 강가의 조약돌, 구름, 비, 인개, 햇살 등 자연적 요소를 부분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다. 바닥에서 약간 띄워 탈실에 매단 난지의 물렁이는 공기나 바람의 순환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강가의 조약돌들, 공중에 봉 뜬 앙혈 더미는 모락 모락 피어나는 뭉게구름들, 천정에서부터 길게 내려온 여러 기닥의 털실은 구름 사이를 뚫고 퍼붓는 소나기의 장대같은 빗줄기 또는 강렬한 태양의 빛살 등을 연상시킴으로써 전시장 안에 자연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옮겨 놓았다. 더구나 앙혈 위 아래로 조명까지 비추면 강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내려치는 빗줄기 모습에서 마치 여우비가 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또한 천연섬유인 코튼이나 울, 그 밖에 돌 등 친환경 재료의 도입과 재활용 작업방식 또한 자연의 순환에 대한 작가의 생태학적 관심을 반영하기도 한다.

한편 작가는 자연 공간에도, 사람의 내면 공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즉 기운이 존재하며, 이는 여러 형태로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실제로 작가는 새벽산 자락의 풀기 태생으로 그 곳의 정기를 받아 나고 자리면서 운명적으로 예술가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개인사

를 다소 고전적인 예술가의 전설처럼 스스로 의식적으로 독특하게 소개하기도 한다. 최근작 〈The Space 19-아버지의 산〉(2008)과 〈The People 18〉(2008)은 작가의 이러한 사고를 강하게 시사해 주는 작품이다. 한 공간에 공존 설치되는 이 두 작품들은 소백산 기운에 둘러싸여 지금도 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느낌을 표현해냈다. 〈The Space 19-아버지의 산〉(2008)은 한지에 먼저 산맥을 드로잉한 후 산과 산이 겹치는 부분에만 무명실을 밀도있게 채워나감으로써 앞산과 뒷산 사이 공간을 흐르고 있는 자연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를 배경으로 둘러싸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The People 18〉(2008)은 바둑 두는 아버지를 비록 누구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한 기운과 거대한 존재감이 전해지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제는 늙어 언락해진 노인의 육체는 한지를 캐스팅한 가벼운 입체조형물로, 세월의 주름살이 새겨진 조금씩글썩한 피부는 표면에 무명실을 한 올 한 올 일일이 붙여 잘 살려 내었다.

〈The Face 7-Satto Miuki〉(2008) 또 한 과거에 일본에서 만난 치매 할머니에 대한 작가 개인의 내밀한 기억을 현재 속에 되살려낸 작품이다. 그러나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린 특정인에 대한 개인의 기억과는 상관없이 관람자에게는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노인의 모습으로 다가올 뿐이다. 처갑고 매끄러운 브랑쿠지의 가우통한 달걀형 두상인 〈잠자는 뮤즈〉를 연상시키면서도 한편으론 전혀 다른 물 특유의 따뜻한 촉감의 누에고치를 연상시키며 평온함이 느껴진다.

부유와 가버음의 지향

김순임은 〈공간 7〉(2006)에서 미국 버몬트의 기혼Gihon 강에서 처집한 물영아를 매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공간 8〉에서는 의자, 그리고 〈공간 10〉에서는 바늘, 급기야 〈공간 12〉(2007)에선 신발마저 매다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작가는 '더 더 더 가볍게 만들고 싶어졌다'고 고백한다. 이 같은 부유의 이미지는 육신을 훨훨 벗어난진 가벼운 영혼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The Space 16-못 다한 말〉(2008)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작가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흰 광목천에 평소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말'을 쓰게한 후, 그 글씨를 붉은 실로 새기고 약 200여 개의 옷고름 모양으로 바느질하여 천정에 매달아으로써 처연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일견 성황당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는 이 작업은 어쩌면 인고의 세월동안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밖으로 내지 못하고 안으로 삭이느라 속이 온통 숯검댕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 세상과의 인연을 청산하는 마지막 통과례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는 무속신앙의 한 부분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김순임의 작업이 지니는 사마니즘적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공중에 매단 옷고름의 내부깊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내면 풍경에 다름 아니며 이승도 저승도 아닌, 무중력의 공간에서 떠도는 영혼들의 가벼운 몸짓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공간에서 관람자들은 그러한 감정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만끽하기도 한다.

김순임은 대지의 두거운 물과 하늘의 가벼운 양털구름으로 대변되는 "ethereal"한 공간설치작업을 통해 차안과 피안의 경계, 이 접점에서 두 공간을 일체없이 넘나들며 삶과 죽음을 넘어서 저 너머의 세계에서의 최후의 안식을 꿈꾸는 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곳은 포근하고 따뜻한 양털 침대에서의 휴식과 평안이 마련되어 있고, 고단한 현실에서의 삶의 피로를 가시게 해주며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기여.

실 . 완고한 할아버지가 그리워하던 그의 젊은 시절 아내였던 사진 속의 여자. 20대 초반 돌아가셨다는 그 여인은 대가족의 가족사진의 한 귀퉁이에서 자기 나의 아버지를 안고 있는 픽셀밖에 남지 않은 오래된 사진 속에만 기록된 사람이었다. 노안으로 어두워진 할아버지의 눈에는 사진의 귀퉁이에 작게 나온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그는 나에게 사진을 확대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녀의 얼굴 부분만, 다른 이는 없이 손바닥에 쏙 들어올 수 있는 크기로.) 그토록 완고하고, 엄하던 그의 얼굴 안에 누군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처음 알게 된 할머니의 존재보다 더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가 궁금했다. The Woman Story 1 : 그녀를 숨과 광복으로 비스질하여 그 형상을 만들고 그녀의 긴 머리칼 한 올 한 올을 무명실로 만들어 일본 아미비코미술관 벽에 설치된 할아버지의 삶의 동선소택산 풍기에서 찍은 들꽃 사진들로 연결시켰다. 비스질로 내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는 Cotton Drawing시리즈는 2001년 이후부터 하고 있었지만, 실을 가지고 공간 속에서,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곳은 거기서부터였던 것 같다.

Ethereal (=ethereal)

1. 가벼운(light), 공기 같은(airy), 희박한,
2. 미묘한, 영묘한, 우아한,
3. 하늘의, 천상의(heavenly)
4. (화학) 에테르상의

Extremely delicate and light; seeming to belong to another, more spiritual, world.

나는 창문이 좋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좋고, 바람이 좋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밖의 풍경들이 좋다.

하늘을 향해 난 창문은 파란 하늘과 구름만 보이는데, 이는 나를 설레게 한다.

나는 사람이 좋다.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이 좋고,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고, 그 사람을 들여다보다 내가 보이는 것을 경험 하는게 좋다.

하지만 이 좋은 것들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다.

Thread The woman in the picture is my stubborn grandfather's wife when he was young. My grandfather has been longing for her since she passed away in her early twenties. To me, she has been the person who only existed in the old family picture with just a few pixels remaining, in which she stands in the corner, holding a baby [my father]. When my grandfather could not see her small face in the corner of the picture any more, due to his old age, he has asked me to enlarge the picture. [He wanted me to enlarge only the part where her face is seen, without anyone in the picture, to the size of his palm.] The fact that he, who has very stubborn and stern look, has such affection towards someone gave me a shock more than getting to know the existence of my grandmother for the first time. I became curious about her.

The Woman's Story 1: I created her figure with cotton wool and cotton cloth by needlework. Her long hair was re-created strand by strand with cotton threads and connected with the pictures of wild flowers taken at my grandfather's hometown (Punggi, Sobaek Mountain) and exhibited at the walls of Yamabiko Museum in Japan. Although I have been working on the Cotton Drawing series, in which I draw the faces of people I have met with needlework, since 2001,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tried to connect certain place with other, with threads and in the space.

Ethereal (=ether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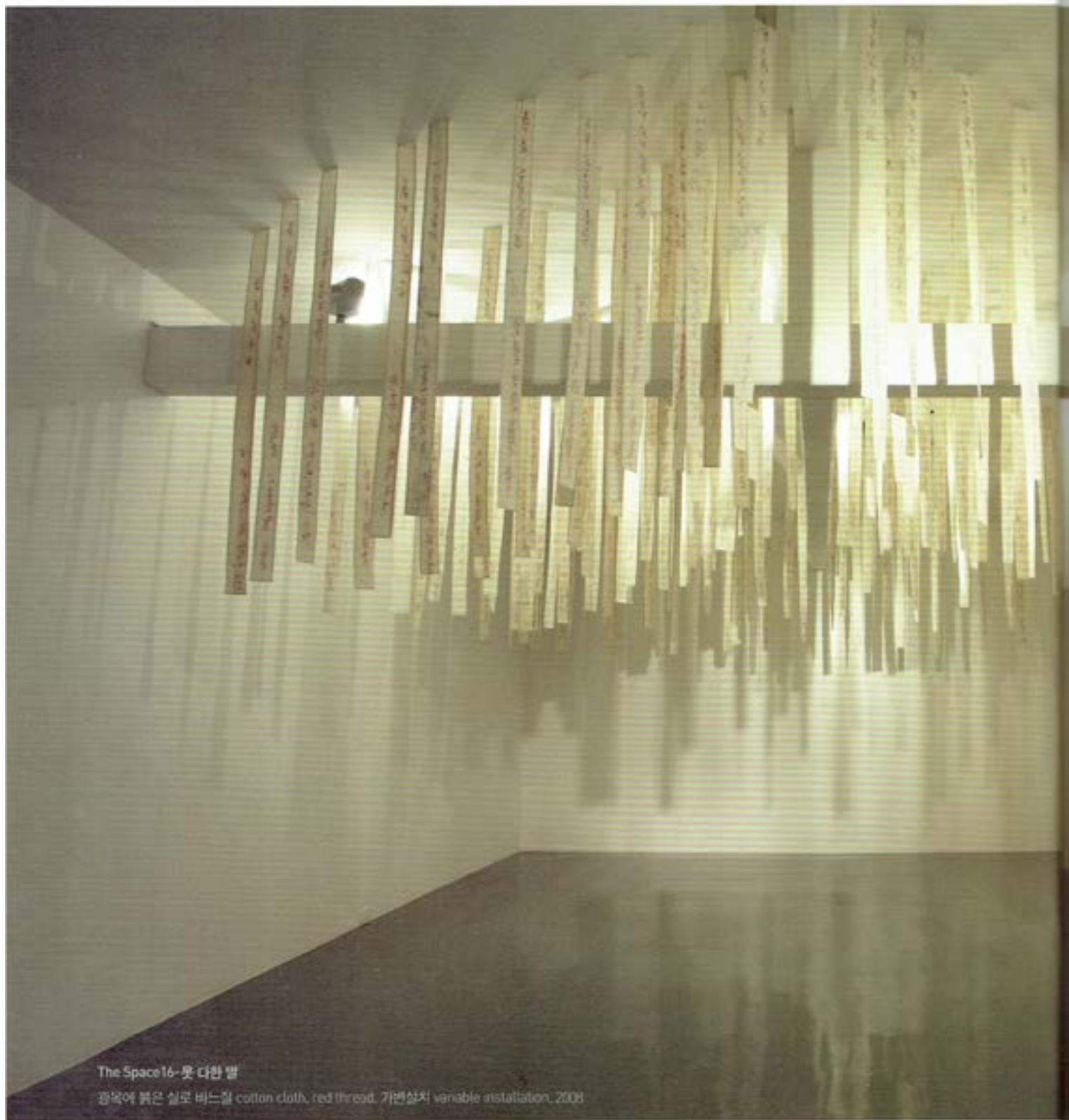
1. a: of or relating to the regions beyond the earth, b: celestial, heavenly, c: unworldly, spiritual
2. a: lacking material substance: immaterial, intangible, b: marked by unusual delicacy or refinement: suggesting the heavens or heaven
3. relating to, containing, or resembling a chemical ether

Source: Merriam-Webster Dictionary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ethereal>)

I like windows. I like the wind and sunshine coming through them, and the scenery to be seen through them. Although only the blue sky and clouds are seen through the skylight, they get me excited.

I like people. I enjoy having conversations with them, seeing into them through the conversation, and experiencing to be able to see myself while seeing into them.

However, all these things that I like are not always beautiful. They has borth.



The Space16- 뭇 다한 땀

공복에 뿜은 실로 바느질 cotton cloth, red thread, 가변설치 variable installation, 2008



2008여름 연천역에서 관객에게,
 '하고싶었으나 하지 못한 마음에 물어둔 말'을
 160cm 긴 끝쪽에 적게 하여 공중에 매다는 야와 설치작업후,
 비바람에 남아버린 이 천에 놓인 연필선 위로 붉은 실로
 재봉질하여 이 마음들을 천정에 달았다.
 나를 무겁게 하는 물어둔 말을 꺼내 나를 가볍게 하는 작업. 하
 지만 이 글들은 한단락은 앞면으로 읽을 수 있고,
 한 단락은 뒷면으로 읽을 수 있어
 결국 다른사람의 조각난 이야기만 관객에게 읽혀진다.
 다른이의 마음의 말 한조각으로 나의 마음의 말을 꺼내본다.

In summer, 2008, at Yeon-chun Station, I asked the
 audience to write 'the word that they wanted to tell but
 could not and kept secret' on the long cotton cloth, 160
 cm in length. Then, I have hung the cloth in the air as an
 open air installation.
 After the installation, I gathered the weatherworn cloths
 and sew over the words, which are written with pencils,
 with read threads. I hung those peoples' minds from the
 ceiling of Gallery. It was the work of lightening oneself by
 bringing out the words one kept secret and thus, made
 the person heavy.
 However, this work is made so that the audience could
 read one phrase of the words from one side of the cloth
 and another phrase from the other side. After all, only the
 fragments of these peoples' stories are read by the
 audience. With one piece of words from other peoples'
 minds, I am bringing out the story in my mind.





천정에 하늘이 보이는 창과 같은 크기의 높고 넓은 공간이 만들어진다.

나도 그 위에 누우면 가벼워 질 것 같은...

양털의 느낌은 부드럽고 따뜻하기도 하고, 또 동물의 냄새와 촉감도 가지고 있다.

땅바닥에 붙어,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만 다닐 수 있는 돌들이 바닥에서 살짝 떠서 관객의 터치에 의해 흔들린다

A window is installed at the ceiling through which the sky is seen.

Another space, which is the same size as the window is created below.

It is a space where one would want to lie down and I would feel lighter if I lie on it.

The wool is soft, warm and has the smell and the feel of an animal.

The stones which usually are attached to the ground and could only be moved by external physical forces are slightly lifted from the ground and swinging by the audience's touch.

The Space17

코튼울, 160개의 난리로부터의 돌멩이, 무명실 cotton wool, 169 of stones from Nanji, cotton thread, 2008





전시장 입구 천정이 유리로 된 공간에 투명실이
머리 위까지 늘어뜨려져 있고, 그 끝에는 바늘이 있다.
이슬비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우나
아프고 섬뜩한 느낌도 동시에 있다.
이곳과 저곳이 통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아픔처럼...

At the entrance of the gallery, cotton threads are hung
down from the glass ceiling over the heads of the
audience. Needles are dangling at the end of each
thread. They are beautiful and glisten like a misty rain but
it has feeling of pain and fearfulness at the same time. It
is similar to the pain which is inevitable to be experienced
when some place is to be connected with other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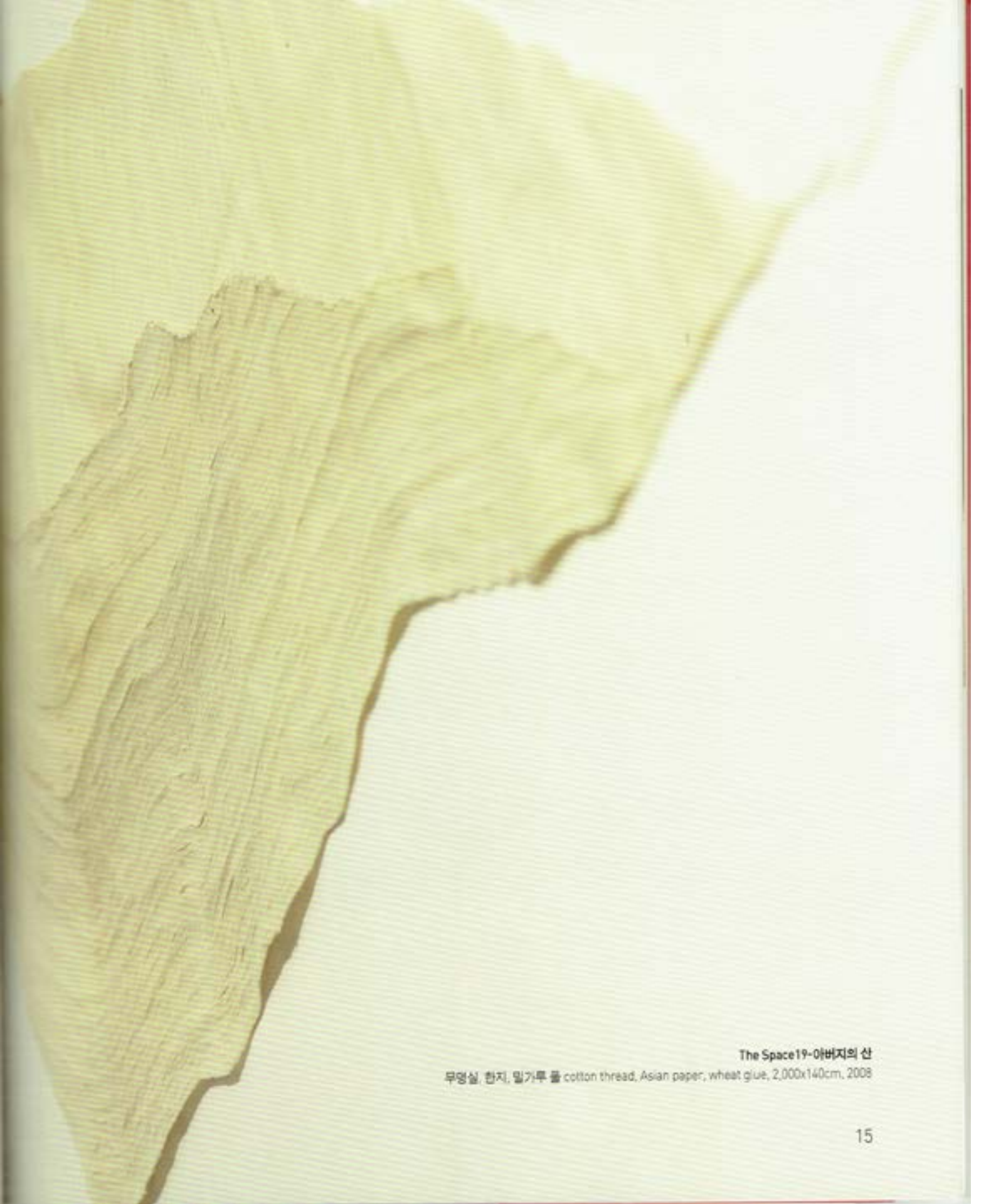
The Space18-천개의 바늘

무명실, 굵루건, 천개의바늘 cotton thread, hot glue, 1000 of needl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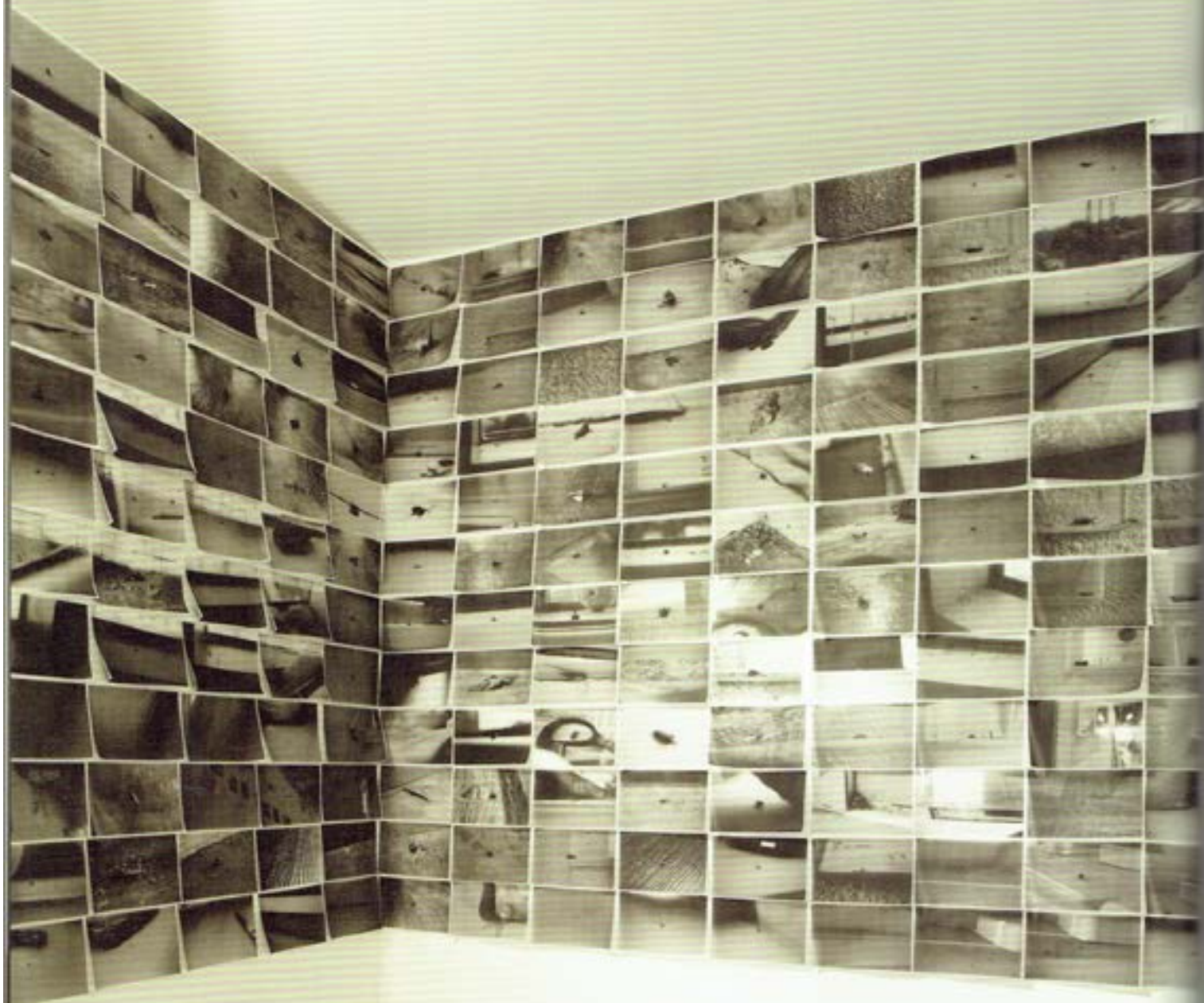


보여지는 형태는 소백산 진경이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 이곳저곳 떠돌다 머무신 곳...
 이 산의 앞산과 뒷산 사이... 산과 산 사이의 공간이 무명실로 표현되었다.
 실은 끈이지 않고 연결되어 만든 이가 쏟은 수많은 시간들이 농축되어 있다.
 산과 산 사이에 흐르는 공기처럼, 내 시간도 이렇게 흐른다.

The shapes in this work represent the scenery of Sobaek Mountain in Korea.
 It is where my father is... where he stayed after wandering around.
 The space between the hill in front and the hill at the back and the spaces between mountains are expressed with cotton thread. The threads, which are connected without any gap, are the result of concentration and a great deal of time the artist devoted. Like the air flowing between the mountains, my time also flows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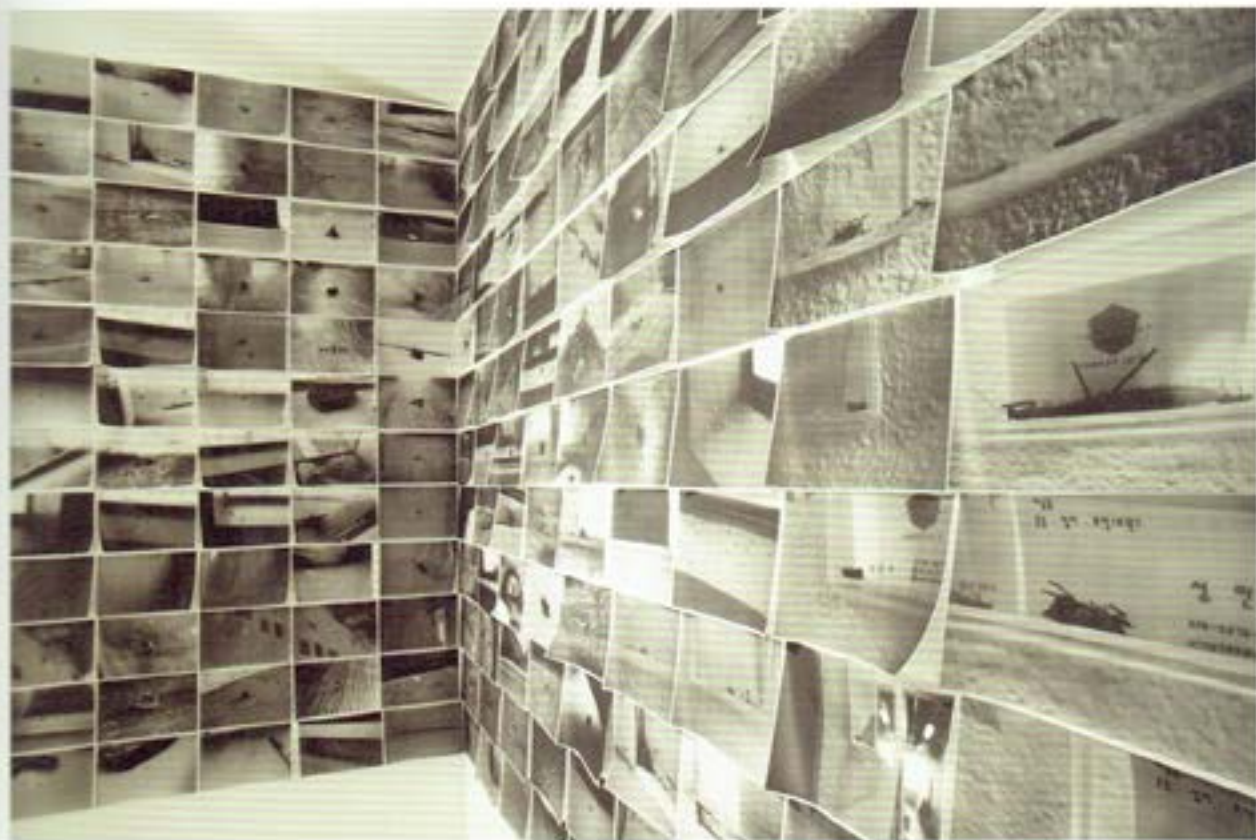


The Space19-아버지의 산
무영실, 한지, 밀가루 풀 cotton thread, Asian paper, wheat glue, 2,000x140cm, 2008



The Space20-Roommate

트러싱지에 디지털 프린트 168장 168 of digital prints on tracing paper, 2008



2008 년 난지창작스튜디오에서 아침마다 작업실 문을 열면,
 나 혼자 쓴다고 생각했던 작업실 바닥에 많은 인생들이 누워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나와 같은 공간에서 평생을 살다,
 내가 모르는 사이 떠난 작은 생명들을 기억하고 기록해 본다.

In 2008, when I opened the door of my studio in Nanji Art Studio every morning
 there were many lives lying down where I thought I was working alone.
 I remembered and recorded those small lives who lived their entire lives
 in the same place with me and left while I was igno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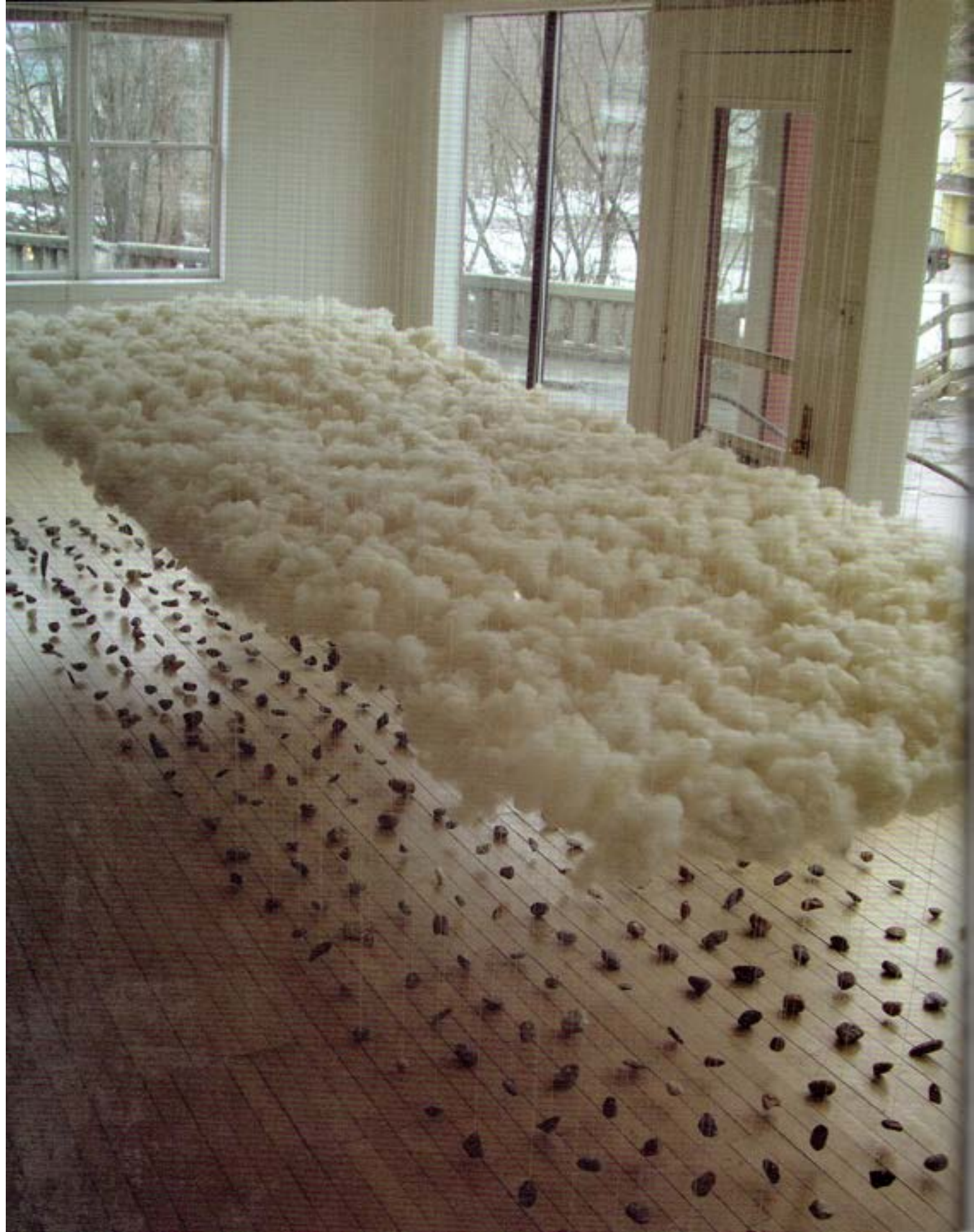


몇 년전 일본에서 만난 치매를 앓고있는 할머니..
 그녀의 얼굴이 너무도 그 마을과 닮아 그녀를 그리고, 광목에 바느질한 작업을 했다.
 매년 그곳을 지날때마다 그녀를 찾아 눈으로 인사하고 눈으로 말하다.
 9월 그녀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지난 봄 그녀가 잠속에서 떠났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아주 편안히 떠나셨다는...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다시 그녀의 얼굴을 만들어 본다.

Many years ago, I have met an old lady in Japan who had dementia.
 Her face bore a close resemblance to the town where I met her.
 So, I drew her and did needlework on cotton cloth.
 Every year, whenever I had chance to pass by the town I tried to greet and talk to
 her with my eyes. And in September, when I visited her house again,
 I heard the news that she passed away last spring while sleeping.
 I created her face again to remember her, who left this world in peace.

The Face7-Satto Miu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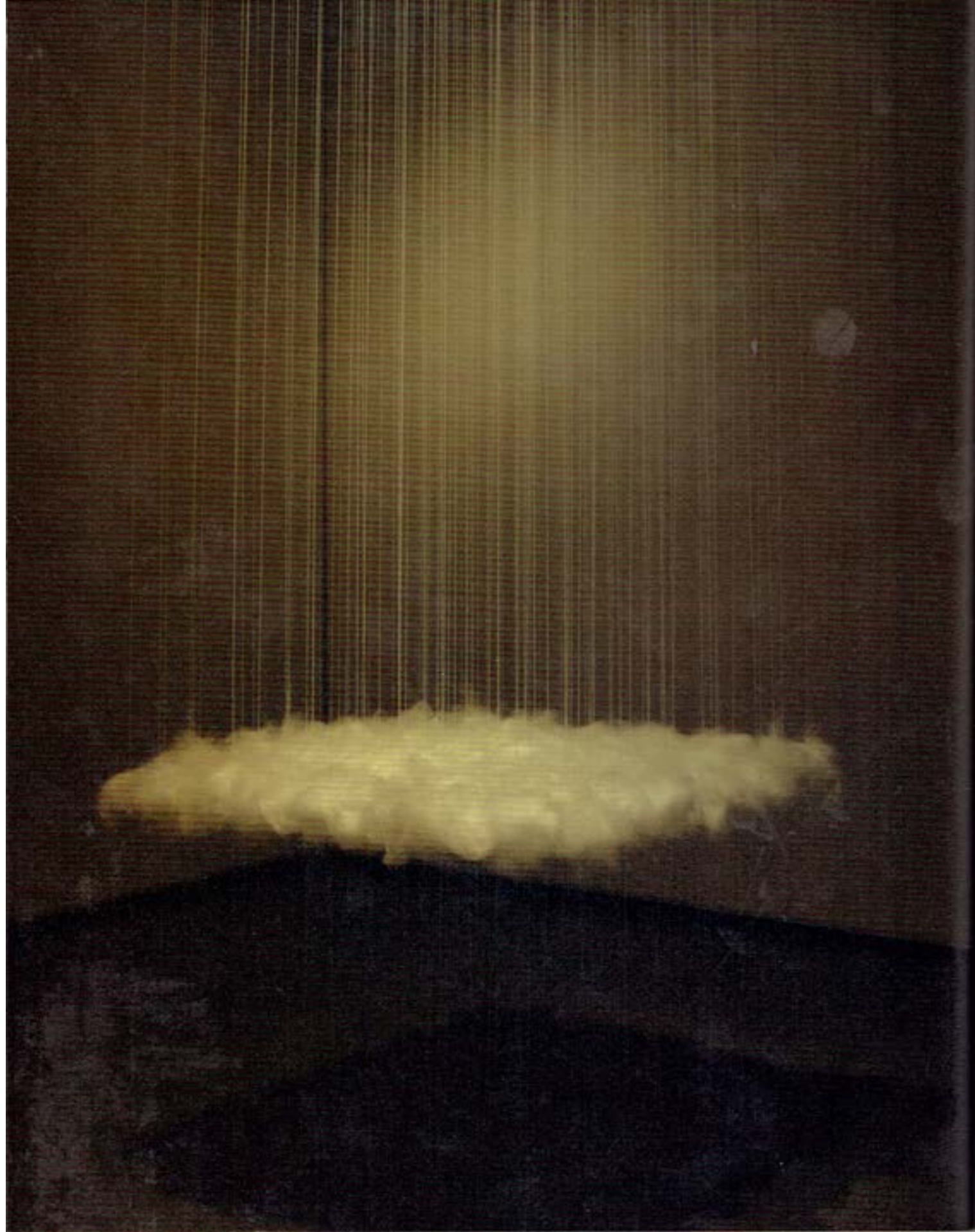
울퉁트 wool felt, 21x 20x19cm, 2008





The Space 12

양철, 무명실, 396개의 기혼강으로부터 온 돌멩이들, 레드밀 갤러리설치(미국 버몬트)
 wool, cotton thread, 396 of stones from Gihon river, Installation on Red Mill Gallery (Vermont USA.), 2007





The Space 10

모헤어 울, 무명실, 121개의 바늘, 이마베코 미술관 설치(일본 후쿠시마)
 Mohair, cotton thread, 121 of needles, Installation on Yamabico Museum (Fukushima Japan), 2005



Artist Statment

1975년 소백산의 한 자락 중턱에 있는 경북 풍기에서 태어나 19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차갑고 강한 산바람과 흙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나의 장난감이었습니다. 8명의 형제를 둔 나의 아버지는 유교사상이 독살하였던 할아버지의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나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의 힘과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대가족의 유일한 며느리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족 내의 사람들이 부딪치면서 만드는 많은 사건들은 나를 오히려 가족의 틀 밖에서 사람과 현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1994년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많은 여행을 했고, 여행 중 만나는 자연과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록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던 98년 이후 나의 또 다른 모습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작업하였고, 이후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이불 속의 자료인 목화 솜과 광목으로 사람의 얼굴을 바느질 하여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은 나에게 드로잉의 다른 방법입니다. 매일 피부를 감싸는 부드러운 천과 그 안의 부드러운 목화는 제가 만나 드로잉 하게 된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2003년 자연미술제에 참여한 이후, 그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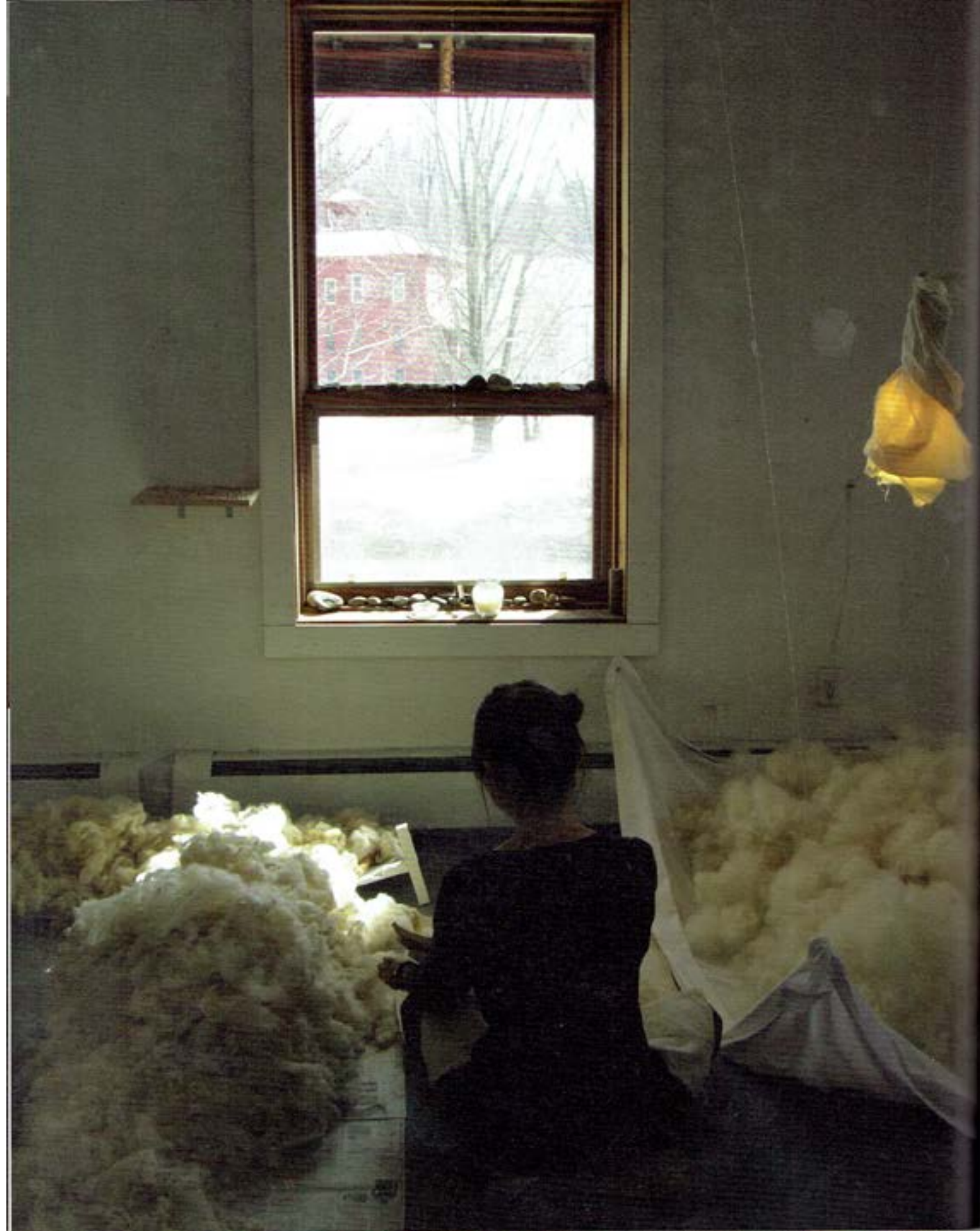


Process of The Space 12 2007 VSC, USA.

저의 드로잉 속에만 존재하던 공간설치작업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폴란드, 등에서 전시를 통해 설치작업을 공간 속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작업은 '만남'에 의해 생기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의해 형성되는 기억과, 기억에 의해 인식된 사람들, 그 사람을 기억했던 공간(지역)의 자연물로 표현하거나, 돌멩이(자연물)를 매개로 돌멩이를 만난 공간과 시간을 기록하여, 만남에서 기억, 기억으로 인한 가치의 생성을 경험하고, 2003년 이후부터는 주어진 공간(전시 공간)과 그 주변(주변 자연 현상과 그 지역 사람과 그 감성)을 상징을 통해 연결하여 초현실적 이미지로 재발견하는 '더 스페이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주체는 작가 즉 저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대상이 존재하는 그곳과 그곳의 자연에 있습니다.

대상이 존재하는 곳과 그곳의 자연은 대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I was born in 1975 in Punggi, Geyongsangbuk-do, a small town located in the hillside of Sobaek Mountain, Korea. During 19 years of my life there, cold and strong mountain wind and everything coming from the soil were my toys. My father, who had eight siblings, was an acquiescent son of my grandfather, an earnest follower of Confucianism. As the only daughter-in-law in a large traditional family, my mother had to take care of the household which she endured with the help of religion and love towards her children. My childhood was full of events created by conflicts of family members and it made me observe people and phenomena outside the frame of family.

Since 1994, I have traveled passionately to many places and collected records to remember the people and nature I meet during the journey. After 1998, when I started to major in fine arts, family, another form of 'I', was the subject of my work. With the memory of my mother and grandmother from my childhood, I have worked with raw cotton and cotton cloth which are used for making Korean duvet, and expressed people's face through the needlework. Sewing is a different form of drawing for me. Soft cloths which we get to wrap our body and skin everyday and the soft cotton inside represent women I had met and drawn. Since I participated in Nature Art Exhibition in 2003, I could actualize my installation projects, which only existed as a form of drawing, through many exhibitions in Korea, Japan, China, the United States, Poland and etc.

My work shows events created at the point of 'encounter', through various forms. To express memories formed by the encounters between people and people perceived through



Studio of Vermont Studio Center / 2007 USA

memories, I used natural objects from the place (space) in which I remembered the person. For example, through the medium of stone (natural objects), by recording the place and time I met the stones, I tried to manifest how the encounters and its memories could generate values. Through 'the Space' series, which I have worked since 2003, I connected certain space (exhibition space) and its surroundings (natural environment, local people and their emotion) through symbolization and rediscovered them as surrealistic images. The owner and the recorder of the memories is the artist, me. However, the method of expression comes from the place and its natural surroundings where the subject exists.

I think the subject, the place it exists and its natural surroundings are not different. As a woman grown up in a large Korean family and a traveler, I would like to express my accumulated memories and show the work through active exhibitions. And through those opportunities, I would like to express the ambivalent feeling that sometimes it is uncomfortable because it is too revealing and sometimes it is very comfortable and soft.

김 순 입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풍림APT 101동 1404호 (407-040)

soonimee@yahoo.co.kr soonimee.egloos.com Soonim.co.kr

2007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 서울 한국

2002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부 조소과 졸(조소전공, 회화평화부전공, 미술사학언계부전공)

개인전

2008 10/15-20 'Ethereal' 갤러리그림슨, 서울 한국(서울시립미술관 SeMA 지원전)

2008 4/4-5/5 'I meet with stone.-어디서 굴러먹던 돌멩이' 대안공간 빔, 인천(인천문화재단)

2/26-3/6 '어디서 굴러먹던 돌멩이' 대안공간 눈, 수원 한국(2008 대안공간 눈기획지원전)

2007 12/21-1/5 '알려지지 않은 신의 얼굴' 전 갤러리 달, 서울 한국(2007담신진작가지원전)

2007 4/13-16 'The Ethereal Space' Red Mill Gallery, 버몬트 미국(프리멘 수상전)

수상

2008 서울시립미술관 2차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2008 인천문화재단 지정공모 수상,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지원금 수상

2008 뉴욕 ISCP 레지던시 작가 선정

2008 인천문화재단 일반공모 지원 선정

2008 대안공간 눈 신진작가 지원자 선정

2007 갤러리달 신진작가 지원자 선정

2007 Hello, Chelsea! 2007 final 11 selection 선정, 35 Fine Art, NYC USA

2007 'ARTnPEOPLE 2007' 신인작가 선정, 미술지 ARTnPEOPLE, 한국

2006-7 Freeman Asian Award Full Fellowship Freeman Foundation, 미국

2003 미술세계 대상 전 입선 단원미술관, 안산 한국

2002 중앙미술대전 입선 호암 미술관, 서울 한국

레지던시

2008-9 ISCP-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뉴욕 미국

2007-8 난지 창작스튜디오, 서울 한국

2007 Vermont Studio Center, 버몬트 미국

2006 VERMONT STUDIO CENTER, 버몬트 미국

초대 · 공모 · 프로젝트 그룹전

- 2008 2006, 2008 Contemporary Art Biennale of Fukushima 후쿠시마문화센터, 일본 (초대)
 2003, 2004, 2008 MMAC Festival in Tokyo Kozome Bijutue, 도쿄 일본 (초대)
 2003-2008 Aizu Art College Yamabico Museum 미시마, 일본 (초대)
 '여름방학특별전' 북촌미술관 서울 한국, '소통' 심포스페이스, 여주 한국
 여섯 번째 여름 전 스톤엔워터 안양 한국, '대면하다' 갤러리 업, 서울 한국
 'Art Culture in 궁-전통과 현대의 만남', 덕수궁 야외설치전, 서울 한국
 Korea Best&New Artist Festival(아트페어) 팀프리뷰,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한국
- 2007 섬유·피에로·코타니&김순임 삼인전, Asian American Art Center, 뉴욕 미국 (초대)
 타임키퍼(공인/설치/실험전), 혜화동1번지, 스페이스 무음, 서울 한국 (프로젝트전)
 Views from the other side, Gallery Korea NYC, 뉴욕 미국(초대)
 제 2회 가늠을 보다전, 갤러리우림 신진작가 지원 프로젝트, 서울 한국(공모)
 Hello Chelsea! 2007 공모전 PS35 gallery 첼시, 뉴욕 미국(공모)
 시사회전, 대안공간 팀 프리뷰, 서울 한국 (공모)
 2005-7 금강 자연미술 예비엔날레전, 공주 한국 (공모)
- 2005 East Wind West Wind, 하이상하이센터, 상하이 중국 (초대)
 2004-2005 Innerspaces Festival, INNER SPACES, 포즈난 폴란드 (초대)
 제 20회 마감뉴스 정기전 삼릉중학교교정, 여주 한국
- 2004 '서바이벌' 전, 대안공간 물, 서울 한국 (초대)
 2003-2004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공주 한국
 'Taste of The House' 오슬로 노르웨이
 파브리카 기획전 '여보시오 내말 좀 물어보소' 전 스페이스 금상, 서울 한국 (프로젝트전)
 'So Far'전, 이화여대미술관, 서울 한국 (프로젝트전)
 신진작가 발언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Mimologia 유리화 전, 평화화랑, 서울 한국
- 2003 새로운 희망 전, 스톤엔 워터, 안양 한국
 '유람선을 타다'전, 한강 세모유람선, 서울 한국
- 2001 'Art House'전, Posco house Gallery, 서울 한국

COLLECTION

- | | | | |
|------|------------------------------|------|-----------------------------------|
| 2008 | 제주현대미술관, 갤러리 담 서울 한국, 팀 프리뷰, | 2006 | Asian American Art Center, 뉴욕 미국, |
| 2007 | 폴로라 타스비히, 뉴욕 미국, | 2002 | 포스코 Art House, 서울 한국 |

Thanks to, 재봉 이미지, 사진: 정진우, 번역: 이소영, 국문세장은 한상아씨들

Kim Soon-im

Add. Pung-Lim APT 101-1404 Hyo-Sung-Dong Keayang-Gu Incheon South-Korea (407-040)
soonimee@yahoo.co.kr soonimee.egloos.com soonim.co.kr

2007 Ewha Woman's University, M.F.A. in Sculpture, Seoul, Korea

2002 Ewha Woman's University, B.F.A. in Sculpture, Seoul, Korea(Second major: Painting and Print Making, History of Art)

Solo Exhibition

2008 10/15-21 'Ethereal' Gallery Grimson Seoul Korea (SeMA 2')

2008 4/4-5/5 'I meet with stone' Alternative Space Beam, Incheon Korea(IFAC Grant)

2/26-3/6 'I meet with stone' Alternative Space Noon Suwon Korea (Selection)

2007 12/21-1/5 'The Face of unknown got' Gallery Dam Seoul Korea (Selection)

2007 4/13-16 The Ethereal Space, Red Mill Gallery Vermont USA. (Freeman Award)

Award

2008 Grant from SEMA(Seoul Museum of Art) for New Artist's solo exhibition

2008 Grant from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Grant from Paradise Culture Foundation

2008 Selected 2008 New York ISCP

2007 Hello, Chelsea! 2007, 35 Fine Art Annual Competition final 11 selection NYC USA

2007 'selected 2007' New Artist from ARTnPEOPLE magazine in Korea

2006-7 Freeman Fellowship Asian Award Winner, Freeman Foundation (U.S.A)

2003 Misulsegea Competition Danwean Museum South Korea

2002. 9 Jungang Fine Art Exhibition Hoam Samsung Gallery

2000 Award for a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from Taebaek Snow Sculpture Competition Korea

Residencies

2008 12/1-2009 3/31 ISCP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 Program) New York USA.

2007 11/1-2008 10/31 Nanji Create arts Studio, Seoul Korea

2007 3/4-4/27 Vermont Studio Center USA

2006 3/5-4/28 VERMONT STUDIO CENTER U.S.A

Selection - Competition - Project Group Exhibition

2008 2006, 2008 Contemporary Art Biennale of Fukushima, Japan

- 2003,2004,2008 MMAC Festival in Tokyo Kozome Bijutue, Tokyo Japan
 2003-2008 Aizu Art College Yamabico Museum Mishima, Japan
 Special Exhibition for Summer Vacation Bukchon Museum, Seoul Korea
 '6th summer' Stone& Water, Anyang Korea
 'Face to Face' Gallery Eri, Seoul Korea
 'Art Culture in Palace' Stone wall way of Duksu Palace, Seoul Korea
 'Korea Best&New Artist Festival' Team-preview Art Show 2008, Seoul Korea
 2007 'Fibers:Fiero,Kotani&Kim' Asian American Art Center, New York USA
 'Time Keeper' Visual Exhibition, Space MUEUM, Seoul Korea
 'Views from the other side' Gallery Korea NYC, New York USA
 Gallery WOOLIM New Artists Project, Gallery WOOLIM, Seoul Korea
 'Hello Chelsea! 2007' PS35 gallery Chelsea, NYC USA
 '7th Team preview Show' Alternative Space Team preview, Seoul Korea
 2005 -2007 Gwangju Nature art PREBIENNALE, Gwangju, Busan, Suwon Korea
 2005 East Wind West Wind Hi Shanghai Center Shanghai China
 2004-2005 Innerspaces Festival, INNER SPACES Poznan Poland
 20th Magamnews, Sang-Pum Middle School, Yeo-su Korea
 2004 'Survival' Pul gallery, Seoul Korea
 2003-2004 Gwangju Nature Art Biennale Gwangju, Gwangju Korea
 'The Taste of The House' Oslo, Norway
 Group PABRICA Exhibition, Space KUMSANG, Seoul Korea (Project)
 'So Far' Ewha Art Museum, Seoul Korea (Project)
 'The Speech of New Artist', SEJONG ART CENTER, Seoul Korea
 'Mimologia' Peungwha gallery, Seoul Korea
 2003 New Hope Exhibition, Stone&water Anyang Korea
 'Go Aboard on A Pleasure Boat' Han-river, Seoul Korea
 2001 'Art House' Posco house Gallery, Seoul Korea

Collection

- 2008 Jeju Contemporary Art Museum, Gallery Dam Seoul Korea, Team Preview Seoul Korea
 2007 Flora Tasbihi New York City USA
 2006 Asian American Art Center NYC USA
 2002 POSCO Art House Seoul Kore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김순임 Kim Soon-im

2008. 10. 15(Wed) - 10. 20(Mon) 그림손 갤러리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프로그램 총괄 장민한 |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프로그램 진행 김우일 |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전시 서문 및 컨설팅 양혜숙 |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발행인 오세훈 | 서울특별시시장

편집인 유희영 | 서울시립미술관장

발행 2008.10 서울시립미술관 | 100-813 서울세종로 미술관길 30(서소문동 37)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루 | 02-2285-0765

비매물

© 2008 서울시립미술관

본 도록에 실린 글과 도판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의시경
창의시경



다산문화재단



